

### 고전 『오뒤세이아(Odyseia)』속의 위험한 짝사랑 이야기

그리스 영웅 신화 속 오뒤세우스(Odyseia)의 모험을 다룬 호메로스의 『오뒤세이아(Odyseia)』를 통해 감금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뒤세이아(Odyseia)』에는 오뒤세우스(Odyseus)가 트로이 전쟁 승리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겪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뒤세우스(Odyseus)는 지략가답게 외눈박이 거인 폴뤼페모스(Polyphemos)와 조우했을 때에도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지만, 폴뤼페모스(Polyphemos)의 아버지인 포세이돈(Poseidon)의 원한을 사게 되어 결국 바다 위에서 부하들을 모두 잃고 홀로 정처없이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표류하던 중 오늘날의 모로코 해안에 있는 오귀



〈아놀드 뵘클린, 『오뒤세우스와 칼립소』, 1883년〉

기에 섬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에 살고 있던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Calypso)’는 오뒤세우스(Odyseus)를 보자마자 첫 눈에 반하게 되고 그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그러나 오뒤세우스(Odyseus)의 소망은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죠. 이렇게 칼립소(Calypso)의 위험한 짝사랑은 시작됩니다.

오뒤세우스(Odysseus)는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자식 생각만 하고 있는데 칼립소(Calypso)는 그를 7년 동안이나 오귀기에 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집착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가서 보니 그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귀향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가운데 그의 달콤한 인생은 하루하루 흘러갔으니 그에게는 더 이상 요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그는 밤에는 속이 빈 동굴 안에서 마지못해 원치 않는 남자로서 원하는 여자인 그녀 곁에서 잠들곤 했다. 그러나 낮이면 그는 바닷가 바위들 위에 앉아...(중략)... 눈물을 흘리며 추수할 수 없는 바다를 바라다보곤 했다.”  
- 『오뒤세이아(Odysseia)』 中

이처럼 밤에는 칼립소(Calypso)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동침을 하고, 낮에는 우수에 빠져 하염없이 바닷가에서 눈물을 쏟는 것이 불쌍한 오뒤세우스(Odysseus)의 생활이었습니다. 섬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결국 칼립소(Calypso)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7년 간의 삶이었죠. 칼립소(Calypso) 입장에서는 일단 오뒤세우스(Odysseus)를 떠나지 못하게 해 놓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조금씩 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뵈클린의 작품에서 애뜻한 눈빛으로 오뒤세우스(Odysseus)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과 이를 외면하며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오뒤세우스(Odysseus)의 모습의 극명히 대조적인 것처럼 둘의 어긋난 사

랑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칼립소(Calypso)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녀에게는 엄연히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감금죄를,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는 중감금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나 중감금죄 모두 사람을 가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나, 감금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중감금죄가 적용되어 형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감금죄를 떠올릴 때, 협소한 공간에 사람을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령, 작은 방이나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례들이 감금죄의 전형적인 유형이지만 오뒤세우스처럼 피해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고 의식주 해결이 가능한, 즉 일정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상태에 해당한다는 판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채무관계 해결 목적으로 여관에 데려갔는데, 여관 내에서 B의 아내를 만나게도 해주었고 B와 함께 술을 마시러 스탠드 바에 가기도 한 사안에서, 판례는 피해자 B가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동을 감금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15, 84도655).

즉, 감금죄에서는 한정된 장소의 크기나 그 안에서 일정 수준의 활동이 가능했는지 여부

보다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감금행위로 판단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립소(Calypso)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오뒤세우스는 섬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생활했을지라도 그녀의 의도대로 탈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바, 칼립소에게는 제276조의 감금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칼립소(Calypso)의 행동이 제276조의 감금죄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되는 제277조의 중감금죄에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감금죄에 명시되어 있는 ‘가혹한 행위’는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폭행, 나체로 만들어 수치심을 주는 것, 음란한 행위, 협박,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불공급, 적당한 수면의 불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뒤세우스(Odysseus)를 사랑한 칼립소(Calypso)는 그에게 의식주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젊음을 주겠다고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칼립소(Calypso)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오뒤세우스(Odysseus)를 두고 이것이 과연 칼립소(Calypso)가 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이 종종 마음에 없는 여성과도 자의로 동침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칼립소(Calypso)가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감금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구타하거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모발을 자른 행위 등을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1. 10. 25, 91도 2085)의 입장을 바탕으로 할 때, 제277조의 중감금죄(가중처벌조항)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라르 드 래레스, 『칼립소에게 오뒤세우스를 풀어주라 명하는 헤르메스』, 1670년 경〉

고달픈 칼립소(Calypso)와의 생활을 시작한 지 7년 후, 오뒤세우스(Odysseus)를 안타깝게 여기던 아테나 여신은 그를 칼립소(Calypso)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제우스(Zeus)에게 간청합니다. 이에 동감한 제우스(Zeus)는 전령 헤르메스(Hermes)를 칼립소(Calypso)에게 보내 오뒤세우스(Odysseus)를 풀어달라고 하죠. 제우스(Zeus)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칼립소(Calypso)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웠지만, 그가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침내 떠나보내 줍니다.

사실, ‘납치’나 ‘감금’을 소재로 하여 사랑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줄거리는 오늘날에도 독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관심을 끌게 하는 기법으로 종종 활용됩니다. 『오뒤세이아(Odysseia)』속 칼립소(Calypso)의 ‘감금’ 모티브 역시 이야기가 오랫동안 구전되기 위한 기술로서 적극 사용된 덕분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뒤세이아(Odysseia)』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